

“한국선에 독참 알리고 싶다”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옥 · 김사업 박사 참선수행서 발간



무문관참구
장휘옥 · 김사업 제창
민족사
2만2000원

“한국 간화선이 위기인 것은 독참(獨參)이 없기 때문이다. 좌선하고 있어도 아무도 점검해 주지 않으니 수행이 셋길로 빠지기 쉽다. 한국 간화선의 ‘방목선(放牧禪)’ 풍토를 바꿔야 한다.”

김사업 · 장휘옥 박사는 서울대 · 도쿄대 출신 불교학자이다. 동국대에서 강의하던 그들은 어느날 강단을 떠나 세계 각국의 수행처를 떠돌기 시작했다. 두 학자는 언어로만 추구하는 진리탐구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10여 년간 티베트 · 유럽 · 일본 등을 다니며 수행을 했다. 최근에는 남해 통영 인근의 작은 섬 오곡도에 명상수련원을 세우고 수행정진을 거듭했다.

그런 그들이 한권의 책을 들고 돌아왔다.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리는 <무문관>을 풀이한 <무문관참구>이다. 책은 집필기간만 2년이 넘는다. 특히 1인 10역을 해도 항상

손이 모자라는 섬생활과 참선수행을 하면서 저술한 작품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책은 에피소드 중심의 기존 선 관련 서적들과 달리 ‘독참’이라는 청구제도를 더해 차별을 꾀했다.

김사업 · 장휘옥 박사는 일본 임제종에서 독참을 경험했다. 김사업 박사는 첫 독참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무(無)자 화두를 받은 다음날 방장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스님이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다. 정적이 흐른 다음, 방장스님의 첫마디가 ‘무(無)를 보았느냐’였습니다.”

김 박사는 “아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말끝에 바로 방장스님의 벽력같은 호명이 떨어졌다. “네가 아직이라고 말한 것은 화두를 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방장스님은 요령을 흔들었다.

김사업 박사는 “방장스님이 요령을 흔들면 독참을 거두고 바로 물러나야한다. 방장스님 방을 나온 이후 다음 독참 때 대답할 것이 두려워 화두에 죽기살기로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안거 결제 · 해제때 큰스님이 법상에서 주장자 두드리는 가르침만으로는 간화선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휘옥 박사는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인



김사업(왼쪽) · 장휘옥 박사는 한국 간화선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독참이 되살아나야한다고 말한다.

타부 형식으로 선지도자와 다수의 실참자가 수행에 관해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반면에 간화선은 1:1로 모든 것을 걸고 한마디씩 하는 엄숙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박사는 독참 제도가 <선원정규>에 기록된 방식임에도 일본을 제외한 한국 · 중국 불교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사업 박사는 “섬 생활을 해보니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한 수 밖에 없다. 일본도 대륙 문물을 소중히 여기는 습성이 있어 중국 송대의 간



화선 전통이 잘 간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두 저자가 일본 임제종 14대본산 가운데 한 하나인 고오카쿠지에서 안거하며 미야모토 다이호오 방장스님으로부터 900여 회 독참 지도 받은 내용을 오곡도에 서의 7년여 수행생활로 되새김해낸 결과물이다.

책에는 두 저자가 참다운 대자유를 공유하기 위해 갈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끼’ 많은 스님의 첫 시집

명상전문가 수덕 스님 “다음 책은 다이어트 서적”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수덕 스님 지음
지혜의나무
1만3000원



수덕 스님은 명상전문가이다.

스님은 출가 전 기자였다. 달라이라마를 인터뷰하다 불교에 매료돼 출가했다. 인도 간디자연치료대학, 미국 샌디에고의 막스커슨연구소, 멕시코 티후아나 자연치료병원 등에서 수학하며 명상지도를 해왔다. 스님은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40여 년간 자신이 갈무리한 세상을 렌즈에 담아왔다. 마음 속 상념들을 정려해 시도 썼다. 그림과 사진 등 다방면의 예술분야에서 실험적 전시회도 열었다. 스님의 ‘끼’는 서울문학에 추천작가로 활공케 했고, <문학과문화>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오랜 작품 생활 끝에 스님은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책을 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수덕 스님의 첫 시집이다.

저자는 1월 30일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명상은 생각을 여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시는 한 부분을 투철히 살펴 명상을 통해 재해석하는 과정과 같다”며 명상과 시의 관계를 말한다.

저자의 시체는 다재다능하다. 책 제목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비롯해 ‘지랄병 났냐?’ ‘노가리 한 마리’ ‘디아스포라와 가위의 흔적을 말하다’ 등 시제들은 스님의 기발함을 대변한다.

특히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재가신도의 결혼식에 참여한 저자가 혼주

측 약속과 달리 채식 아닌 스테이크 공양을 받아야 했던 당혹스러움이 시가 된 것이다.

저자는 “모든 현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3년 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량을 경찰이 검문했던 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서 그에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 시 ‘푸른 집’을 담았다. 그리고 시에서 저자는 요순의 남면(南面)을 노래한다. 남면은 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신하들의 조례를 받던 의례를 말한다. 지도자의 지도자답기를 강조한 것이다.

저자는 “사회참여는 출가자의 본분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으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수행자의 역할은 사회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자는 “시도 대중의 갈 길을 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글 쓴다는 것이 자신을 드러냄이라며, 바보들도 알아보고 글을 쓰라는데 내게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생각나는대로 나는 많이 쏟아내는 편이다. 쓰고 부수고... 그리고 보면 내 작품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설명하면서도 첫시집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번엔 잘 쓸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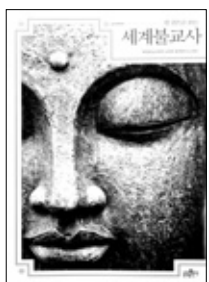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수덕 스님의 책에 실린 사진. 책에는 스님이 직접 찍은 작품 사진들이 담겨 시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12개 나라 불교사 일목요연 정리

승가대학 필수교과 교재 출간...재가자도 보세요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불학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인도 중국 티베트 몽골 일본 미국 등 12개 나라의 불교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는 최근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를 출판했다. 책에는 12개 나라 불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담겨있다.

책은 2012년 개편된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필수교과목 ‘세계불교사’의 교재로 사용된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선불교 등 독자적인

대승불교를 발전시켜 불교사의 위대한 꽃을 피운 중국, 계율 준수 및 대승불교 구세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대적 불교로 새롭게 약진하는 타이완, 7개 계통 180파에 이르는 종파로 각 종파의 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종파불교의 일본, 후기 인도 불교 경문을 온전히 전승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금강승의 나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불교국가이면서 티베트불교 문화권의 사찰집이자 원동력이었던 몽골, 동남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베트남, 초기불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융광모이자 종교와 과학의 융합적인 미국 등으로 책은 나라별 특징을 요약 · 정리했다.

이들 나라별 불교사 저술에는 ▷명법 스님(미국) ▷김성수 서울과학기술대 조교수(몽골) ▷김진영 동국대 외래교수(동남

그대는 신이다



책 <그대는 신이다>는 1910~1997년 복인도에 살았던 슈리 H.W.L. 폰자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 노래들을 모은 것이다. 이 노래들은 숭고하면서 단순한 진리에 대한 완전한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인 슈리 H.W.L. 폰자는 그 진리를 우리는 순수주의이며 전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저자는 거듭 당부한다.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제쳐놓고 내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진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진리는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르고, 머리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동섭 기자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0226-중-4825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지한의원

예약문의 |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 의 사 원장스님 홍화 (권대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학습서 ◆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3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육사육임사주강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3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사육임강론집시선택비법 2011개정 제3판본 1권 수록 30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리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리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리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리판 수록 5만원 · 품해몽 5만원 이상 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리판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집시선택비법 2011 제3판본정리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 육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육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주) 동업 301-0071-8027-01 /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